

만년설 사라지고 있는 글레이셔국립공원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몬태나 주에 위치한 글레이셔국립공원(Glacier National Park)은 '빙하'를 뜻하는 글레이셔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만년설과 빙하로 가득차 있는 천혜의 땅이다. 110년 전 처음 국립공원화 되었을 당시만 해도 이 공원에는 100개가 넘는 빙하와 25에이커의 얼음 덩어리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며 이 공원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1966~2015년 사이 빙하는 26개가 됐고 그나마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레이셔국립공원의 빙하의 평균 손실률은 40%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면적의 80% 잃었다.

글레이셔국립공원 측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비교 사진을 올려 큰 주목을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난 1913년 8월 19일 촬영한 것으로 배경이 된 곳은 잭슨 빙하다. 다른 하나는 117년이 흐른 지난달 28일 같은 곳을 촬영한 것으로 두 사진은 한 눈에 봐도 사라져버린 빙하의 모습을 확연



▲ 1913년 촬영된 잭슨 빙하(좌측)와 오늘날의 잭슨 빙하 모습. 사진=글레이셔국립공원 페이스북

히 드러내고 있다.

빙하와 만년설의 손실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빙하의 물이 야생동물에게는 먹이 공급원이 되고 인간에게는 급수, 수력 발전과 농작물에 차가운 담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빙하의 손실은 단순히 관광객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닌 주변 일대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셈이다.

글레이셔국립공원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없어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글레이셔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평균적인 지구 기온보다 2배나 따뜻해졌다. 특히 평균 기온이 32°C가 넘는 날이 20세기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의회, 부양책 논의 시들 대선 이후 통과 유력

제5차 부양책 출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잇따른 기업 도산과 여전히 높은 실업수당 청구자수 등 미 실물경제가 여전히 코로나19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책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 약 5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쟁' 속에 부양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진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이데일리'가 CNN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5차 부양책이 11월3일 대선 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믿으며 미 경제를 다소나마 '낙관적'으로 내다봤던 경제계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 실물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경제의 7할을 책임지는 소매지표는 지난 8월 전달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소비 증가세가 멈춰 선 것이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여전히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월가에선 고용시장이 느린 회복세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기업과 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

롬 파월 의장이 최근 통화정책회의 격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올 초 경제 활동과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추가 부양책 없이는 미국 경제의 특정 분야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미 의회를 압박한 배경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추가 부양책이 불발된다면 월가는 올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의 아우성, 연준 의장의 압박에도 여야의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공화·민주당 온건파 의원 50명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규모)는 더 커야 한다."고 반색한 반면,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관련 논평을 삼가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론 배경에는 이번 선거에서 대선과 상원, 하원을 싸울 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대선 전 미니 부양책을 통과시키느니, 백악관과 상·하원의 권력을 모두 거머쥔 뒤, 내년 초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전격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9월 28일 ~ 10월 4일, 2020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쥐</p>	<p>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생활해야겠습니다. 마음에 확실히 정한 바가 없으면 좋은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운세이므로 뜻밖에 횡재하여 재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를 당하여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말</p>	<p>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위에 맞추어 좋은 사람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때이므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노력하면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소</p>	<p>하늘의 도를 본받아 절도있는 생활을 하며, 꾸준한 노력함으로써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듯이, 맨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윗사람과 동료들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양</p>	<p>안전한 것을 선택하고 훌륭한 협조자를 얻으면, 흉이 변하여 길 이 될 것입니다. 험한 것을 보더라도 조심하여 머물러 있으면 편안해지는 법이니, 무모한 용기를 부리거나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도모하는 일은 서남쪽이 이롭고 동북쪽은 불리합니다. 대인을 만나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범</p>	<p>자신이 도모하는 일의 시작은 비록 미미하더라도 깊이 생각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함부로 벌이지 말고 하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 뜻밖의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나 실물 사건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금전△애정○건강○</p>	 <p>원숭이</p>	<p>일상생활에는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기쁨 이외에 내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일은 끝맺음을 분명히 맺어야 하고,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 내의 갈등이나 파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토끼</p>	<p>진귀한 신선의 약을 얻듯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운세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처럼,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면 예상 밖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화단결이 중요합니다. 낡은 것보다는 새롭고 참신한 것에 뜻을 두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닭</p>	<p>지금은 미래를 위하여 차분하게 내면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특히 학문 연구나 시험 준비와 같이 차분하게 실력을 쌓는 분야에 종사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덕은 베풀고 다른 사람의 시기나 구설, 허물은 눈감아 주어야겠습니다. 나쁜 유혹이나 사기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용</p>	<p>땅 위에 바람이 불어오면 주위를 관찰하고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하듯이, 세상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학문, 예술, 종교, 문화 등 정신적인 분야에 몰두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에 덕을 쌓고 겸손하게 생활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기겠으나,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본위의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애정△건강○</p>	 <p>개</p>	<p>고기와 용이 넓은 바다와 강을 만난 격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며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분주하고 왕성한 활약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운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앞질러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주변의 협력자와 힘을 합쳐야 하고,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는 격입니다. 어린 기러기가 물가에서 바위로, 육지로, 나무 위로, 언덕 위로, 그리고 구름 속으로 날아가듯이 일의 순서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모하고 경솔하게 일을 진행하면 좋지 못합니다. 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좋은 때를 만났으니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면 아랫사람은 불안 없이 그를 따라 행동하게 되듯이, 뜻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면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겸손의 미덕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금전△애정○건강○</p>